

# “현장중심 소통행정으로 새로운 변화 이끌겠다”

## 문인 북구청장 민선 8기 구정 비전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민선 7기 토대 위에 민선 8기도 구민의 안전과 품격있는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민선 8기 청사진으로 네 가지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상권 부활 운동을 추진해 민생경제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구만의 정체성을 담은 도시 통합브랜드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개발해 기후변화 위기로 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내놴. 북구도 언젠가는 광주의 중심을 넘어 ‘호남권 제1의 첨단산업 경제도시’ 로 도약을 이루겠다는 문 청장의 다짐이 민선 8기에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코로나 민생경제 위기 극복 주력

### 첨단과학기술 선도도시 조성 목표

### 배려있는 포용복지모델 실현 앞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13일 “민선 7기에 채워진 다양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구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민선 7기 4년이 부족함을 채우는 시간이었다면 민선 8기 4년은 평생을 누릴 도약의 시간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러 “기본과 원칙을 등불 삼아 가장 낮은 곳에서 작은 변화부터 만들어가기 위해 구민의 삶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며 “생활 속 곳곳에서 민중·인권·평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문화와 예술이 도심 전역에 그려지는 품격있는 북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년간 문 청장은 민선 7기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해 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광주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수상 실적 또한 대통령상 6회, 국무총리상은 7회를 수상하며 전국 광역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으며, 여기에

서 확보한 상사업비 1,750여억 원을 주민 복리에 재투자했다.

민선 7기에는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투입된 예산의 3배에 달하는 1,400여억원의 생활SOC 예산을 확보해 도심 곳곳에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 등을 건립했다.

이에 문 청장은 민선 7기의 성공적 변화를 발판 삼아 민선 8기에는 ‘섬김과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일구어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민선 8기 청사진으로 ▲위기에 강한 북구 ▲생활의 품격이 보장되는 북구 ▲지속발전 가능한 북구 ▲공정한 배려가 있는 든든한 북구 등 네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위기에 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소상공인 회복 상생기금 조성, 상권 르네상스 운동,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 등을 추진해 민생경제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스마트 하수관로 설치, 우수저류시설 확충,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완공 예정인 생활문화 인프라를 활용해 동별 테마 축제를 열고 북구만의 정체성을 담은 도시 통합브랜드 개발과 중외공원 문화에



술벨트 활성화 등 민주·인권·평화, 문화·예술 도시답게 구민이 품격있는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힘을 계획한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작해 22년 동안 이어온 마을만들기 사업을 에너지공원, 햇빛발전소 조성 등 녹색마을 만들기로 전환해 풀뿌리 에너지 전환의 초석을 다지고, 다양한 드론 기술 실증 지원과 인공지능·드론 융합 페스티벌 등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선도도시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청년 취업·창업 활동과 월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해 청년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주택 유치,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통합돌봄 등 공공임대주택의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공정하고 배려 있는 포용복지 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민선 8기 목표 달성과 산적한 현안 해결은 혼자 힘으로 결코 이뤄낼 수 없다”며 “43만 구민과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1,700여 공직자가 힘을 모아 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역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러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현장중심·소통행정으로 구민의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일구는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 폭우·폭염...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 살수차·그늘막 피해예방 집중

### 기상정보 예찰 재난관리 주력

광주시 북구는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점검, 예방활동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라 올해 여름도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와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대형공사장, 하천, 하수도 등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강화한다.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28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양수기를 추가로 보급하고 수방자재 33개 품목, 총 2만여 개를 점검한다. 침수 우려가 있는 취약도로의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침수차량 발생을 대비한 주차 공간도 확보·운영한다.

폭염저감시설 119곳과 실내 무더위쉼터 526곳, 살수차 운영 등을 통해 폭염 피해 예방에 집중한다. 종합대책 기간 동안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기상정보 예찰, 신속한 재난예·경보 전파 등 재난관리에도 힘쓴다.

문인 북구청장은 “철저한 사전 대비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시 북구가 여름철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상습 침수구역을 방문, 하수도 정비 등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 위기청소년 과학캠프·음악활동 지원

광주시 북구는 최근 국립광주과학관, 광주남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광주헬로오케스트라와 ‘위기청소년 과학캠프·음악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북구는 사업총괄, 행정·재정 지

원을 하고 국립광주과학관은 야간 천체 관측, e코딩 분리수거 로봇만들기 등 과학캠프를 운영한다. 또 광주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음악활동을 기획·수행하고 광주헬로오케스트라는 악기 수업을 진행한다. /최환준 기자

## ‘무관용’ 원칙...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

### 승진임용 제한 등 사후제재 강화

광주시 북구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근절 대책 시행에 나섰다.

북구는 공직자 음주운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비위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례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북구에서는 최근 4년 동안 11명의 공직자가 음주운전 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고, 올해도 2명의 공직자 음주 운전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북구는 내부 전산망에 연중 음주운전 예

방 포스터를 게시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사례를 담은 서한문과 문자를 주기적으로 발송한다. 또 모든 부서에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을 받고 자체 교육을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특히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분하고 승진 임용 제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포인트 차감 등의 사후 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귀가를 돕는 운전자 지명제, 부서장·직원 연대 책임제 등 자율적 통제 방안도 추진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함께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 ‘우리 동네 최애 산책로’ 수기 공모

광주시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우리 동네 최애 산책로 콘테스트’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주민들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고 걷기 문화를 확산시키는 취지다.

공모전 주제는 ‘나만이 알고 있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산책로’이며 이에 대한 생각, 경험, 일화 등을 공유하면 된다. 대상 지역은 광주

시 북구 행정구역 내 산책로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걷기 앱 ‘워크온(WalkON)’ 내 북구 커뮤니티 ‘싸목싸목클럽’ 게시판에 위치도와 소개 내용 등을 게시하면 된다.

북구는 심사를 거쳐 8월 중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총 16명을 선정,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최환준 기자

M 전남매일 | 장애인 학대 신고 캠페인

#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신고전화 1644-8295

##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을 때릴 때

장애인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몸을 만질 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에게 욕을 하거나 무서운 말을 하며 괴롭힐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버렸을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식사를 안 주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돈을 빼앗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을 때

### 장애인학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조사를 합니다.
3.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4.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일을 겪었을 때 장애인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로 전화합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하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design by 소스컴퍼니